

사랑 넘쳤던 파리 올림픽, 빵 사랑도 넘쳤다

숫자로 본 파리올림픽

사랑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는 뜨거운 성화만이나 출전 선수들의 사랑도 불타올랐다.

2024 파리 올림픽 홈페이지는 숫자로 이번 대회를 결산하면서 7번의 프러포즈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중국의 황야충은 시상식 직후 프러포즈 반지를 손에 끼었다.

황야충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중국 남자복식선수 류위첸으로부터 프러포즈를 받았고 이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쿄 올림픽 남자복식 은메달리스트인 류위첸은 황야충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부부'가 됐다.

황야충은 이번 올림픽에 정쓰웨이와 함께 출전해 결승에서 정나은(화순군청)-김원호(삼성생명) 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육상 여자 3000m 장애물 결승에서는 프랑스의 알리스 피노가 유럽 신기록(8분58초67)으로 4

중국·이탈리아 등 7번의 청혼

선수촌 하루 빵 7600개 소비

경기장 주변 핫도그 40만개

하루 최고 관중 74만3000명

메달엔 에펠탑 철조각 91kg

자원봉사자 4만5000명 활약

위에 오른 직후 관중석에 있던 남자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했다.

이번 올림픽 핸드볼에 출전한 이탈리아의 파블로 시모네와 하키피라르 캄포는 대회 개막식날 청혼했고, 요트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프랑스의 샤를린 피공과 세라 스테아르 등도 이번 올림픽에서 사랑을 맹세했다.

이외에도 파리올림픽의 흥미로운 기록들이 공개됐다.

'빵의 나라'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선수

촌에서 소비된 빵의 양도 엄청났다.

선수촌에서는 매일 페이스트리 4000개와 머핀 3000개, 바게트 600개가 소비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하루만에 74만3000명이라는 어마아마한 관중수가 기록되기도 했다.

74만3000명이라는 관중수가 기록된 지난 7월 30일에는 26개 종목의 경기, 9개의 결승전이 열렸다. 또 이번 파리 올림픽 메달에는 에펠탑 철조각이 담겼는데, 이는 20세기 중반 에펠탑의 개보수 과정에서 철거해 보관하던 철조각 91kg으로 제작됐다.

이번 대회 기간 축제 장소에서 판매된 핫도그는 비건 핫도그 10만개를 포함해 총 40만개다.

이는 줄지어 나열했을 때 80km에 달하며, 선수촌과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을 스무 번 왕복하는 거리와도 같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4만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장소 곳곳에 배치됐으며, 이들은 파리

와 마르세유, 니스 등 40개가 넘는 올림픽 경기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 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낸 중국의 황야충이 류위첸으로부터 프러포즈 반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이 18일 삼척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영암 장사 '만만만만세'

삼척장사씨름대회 김민재 백두장사·최정만 금강장사·이동혁 소백장사 등극...단체전도 우승

영암군민속씨름단이 2024 민속씨름 삼척장사씨름대회에서 세 마리의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전국 최강씨름단임을 입증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백두급(140kg 이하) 김민재, 금강급(90kg 이하) 최정만, 소백급(72kg 이하) 이동혁이 장사에 등극했고, 단체전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김민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삼척체육관에서 '위터스제약 2024 민속씨름 삼척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5판3선승)에서 정창조(수원특례시청)를 상대로 11번째 백두장사에 등극했다.

16일부터 4장까지 장형호(증평군청), 박종현(의성군청), 장성우(MG새마을금고)를 각각 2-0으로 완파하며 결정전에 오른 김민재는 첫 번째 판

을 들베지기로 승리한 뒤 상대 기권패로 백두급 정상에 올랐다.

이동혁은 생애 첫 소백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동혁은 황찬섭(제주특별자치도청)을 2-1, 김수용(광주시청)을 2-0으로 꺾은 뒤 노민수(울주군청)에 2-1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주영(태안군청)과의 결정전에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을 내준 이동혁은 세 번째 판 잡채기, 네 번째 판 발다리에 성공하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이동혁은 다섯 번째 판에서 잡채기 3-2 역전에 성공해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최정만은 통산 21번째 금강장사로 등극했다. 최정만은 이번 대회 금강급 16강전에서 김영민

(광주시청)에 2-0, 8강전에서 이민호(증평군청)에 2-1로 승리한 뒤 준결승전에서 김민정(영월군청)을 2-1로 꺾고 결정전에 진출했다.

결정전에 나선 최정만은 정석진(정읍시청)을 3-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정만은 첫판과 두 번째 판에서 잡채기, 세 번째 판에서 발다리 걸기로 승리하며 정석진을 꺾었다.

한라급(105kg 이하) 최성환과 태백급(80kg 이하) 장영진(이상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준우승을 기록했다. 최성환과 장영진은 각각 김무호(울주군청), 정민국(인천시청)과의 결정전에서 0-3으로 패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MG새마을금고를 4-1로 꺾고 남자부 단체전 우승도 차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대, 전국대학농구 6년만의 우승 기념 행사

'대학농구 여자부 전국 최강자' 광주대가 MBC대 전국대학농구대회 6년 만의 정상 탈환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대는 최근 JS웨딩컨벤션에서 국선경 감독 등 광주대 농구부 선수단 20여 명을 비롯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과 체육회 임원진, 광주대 김경태 대외협력처장, 김상엽 체육부장, 송창영 대외협력처 부처장 겸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승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광주대는 지난달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단국대를 68-58로 꺾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다.

우승을 지휘한 국선경 감독은 "이번 대회 결과

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9월에 재개되는 KUSF 대학농구리그에서 대회 2연패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MVP와 어시스트상을 받은 유이비(4학년)와 득점상에 빛나는 양유정(3학년)은 20일 열리는 WKBL(한국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 진출을 노린다.

'2024-2025 WKBL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고교 졸업 예정자 22명, 대학 졸업 예정자 3명, 대학 재학 선수 1명, 외국국적동포 선수 1명, 해외 활동 선수 1명 등 2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

여수한려초 수영 임지율, 신기록 세우며 2관왕

전남, 대동령기 10개 메달



결승에서도 임지율은 30.22초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100m 예선에서도 임지율은 1분06초07로(중전 기록 1분06초34) 대회신 기록을 세우며 결승에 진출했다.

출했고, 결승에서 1분05초92초로 한번 더 기록을 앞당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관왕을 차지한 임지율은 이번 대회 유년부 최우수선수에도 등극했다.

전남체중수구팀(오석진, 정현우, 정대준, 권가은, 변수현, 김연우, 오진혁)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의 수영 꿈나무들이 '제43회 대동령기 전국수영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전주완산실내수영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수확했다.

특히, 여수한려초 임지율(4년·사진)은 유년부 자유형 50m와 100m 예선과 결승에서 신기록을 4번이나 갈아치우며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임지율은 자유형 50m 예선에서 30.40초(중전 기록 30.86초)에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대회신기록과 함께 결승에 진출했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